공연장으로 들어가면 넓고 새카만 극장이 있다. 조명이 켜진 넓은 극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앞에 금방이라도 배우들과 무용수들의 모습이 펼쳐질 것만 같다.

이 공간의 객석은 유동적이라 무대와 객석을 공연기획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.

<https://youtu.be/Sb6CQ3F8xKY>

왠지 이런 작업이 떠오르는 자유로운 공간.

(전시장 안에서 무용수들이 정말 동시대적이다 라고 말 하면서 춤을 춘다)

그 옆의 연습실에는 연기 소품들이 있는데 인형들이 독특하고 규모도 커서 놀랍다!

그 안쪽의 문은 열면 안된다.. 분장중인 배우들과 마주칠 수 있어서.

오토마타와 인형극장. 거리극의 전문가 분이 계신다.